



제8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 입상작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덟번째인 92년도에는 전국에서 총 2천1백66명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편, 금상 2편, 은상 5편, 동상 10편, 장려 30편 등 총 48편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이번호에는 동상 4편을 소개한다.

할머니의 우유

윤선영

경기안성 백성국교 3년

우리 할머니댁은 보개면 구사리에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동신국민학교 앞에서 내려서 작은 하천을 건너 한참 걸어가야 합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 나는 한 달에 두서너번 정도 그 곳엘 갑니다.
동네 안 길을 따라 5분 남짓 올라가면, 흰색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해진 할머니댁 담장이 보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기도 전에 개는 짖어대고, 할머니는 벌써 방문을 열고 나오십니다.

비탈길을 오르느라 숨이 찬걸 보시고는 얼른 냉장고로 달려가셔서서는 커다란 우유 한 통을 가져오십니다.

“아침에 가져온 것이니 신선할 거야. 얼른 마시거라. 응?”
하시면서 컵에 듬뿍 따라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먹어 왔지만, 입에 맞질않아서 매번 억지로 먹다시피 합니다.
몸에 좋다는 할머니의 말씀이나, 여러가지 영양소가 많다는 책의 글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마 우유를 아예 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우유를 10년 가까이 먹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엄마가 직장 관계로 매일 출퇴근을 해야했기 때문에 내가 우유를 어렸을때 부터 마셔서 내가 우유를 좋아하는 줄 아시는 모양입니다.

늘 먹어온 것이니 습관이 되어서 입맛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차마 싫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을 드리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즐거운 표정으로 그 우유를 모두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더 갖다 주랴?”
하시면서 또 가져 오시려고 하십니다.
나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으니 이따가 먹겠다고 말씀드리고, 얼른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나곤 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할머니는 우유를 잘 먹는 것이 기특하다시며 일부러 우유를 주문해 두셨다 주셨던 것입니다.

“
항상 나를 위해
일부러 우유를 준비
해 놓고 기다리시는
우리할머니. 할머니
께서 주시는 그우유
가 어찌면 나를 더
욱 튼튼하게 해주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

이젠 정말 큰일났습니다.

이제와서 싫다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은 토요일 할머니댁에 가기로 한 날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할머니댁에 가면 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개짖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께서 나를 반기시며 내게 우유가 가득 담긴 커다란 유리컵을 내미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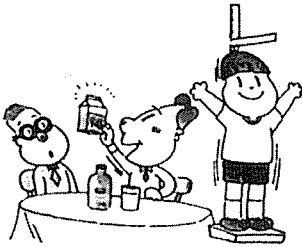
그러면, 나는 우유 한 컵을 단숨에 마시고는 “아유, 배불러.”하면서 나오지도 않은 배를 불쑥 내밀고, 빠른 걸음으로 건넌방으로 건너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위해 일부러 우유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할머니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주시는 그 우유가 어찌면 나를 더 튼튼하게 해 주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에 쓴 음식이 몸에 좋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 우유를 어서 빨리 먹고 싶습니다.



.....
동상

우유당번

이경미

대구 달성국교 6년

“엄마, 나 늦어 빨리빨리.”

아침 늦게 일어나 서두르는 나를 보고 엄마도 바쁘게 움직이셨다.

“엄마 나 아침 못먹겠어 그냥 갈께.”

“안돼, 그럼 우유라도 한잔 먹고 가렴.”

“싫어 우유먹으면 속이 미숙미숙 거린단 말야 그냥갈께. 엄마.”

서둘러 집을 나와 학교로 향했다.

반아이들 모두 자습을 하고 있었다.

‘땡땡땡’

첫째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선생님께서 교단 앞에 서셨다.

“여러분 우유당번인 철민이가 다리를 다쳐서 우유당번을 새로 뽑아야 했는데 누가 자진해서 할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선생님께서

“우유당번은 청소를 안해도 좋아요.”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저요. 저요.”하며 손을 들었다.

‘청소를 면제해준다고? 좋아 나도 한번 해 봐야지.’

“

우유를 싫어하는 나는 우유당번은 청소를 면제해준다고 자칭, 우유와 친해져 이젠 우유대장이 됐습니다.

”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여자 아이는 나 밖에 손을 들지 않아 남자아이들이 날보며 웃었다.

“좋아. 경미가 한번 해보고 싶은 모양인데 철민이가 나올때까지만 해봐.”

“네”

나는 기분 좋게 대답했다. 남자아이들이 야유를 보냈다.

첫째시간을 마쳤다. 나는 우유를 가지러 창고로 갔다. 거기에는 아저씨 한분이 계셨다. 나는 얼른 인사를 하며 아저씨께 여쭙어보았다.

“아저씨 저 처음이어서 그런데요? 6학년 8반 우유통은 어디에 있지요?”

“음 저쪽에 있어.”

나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시는 쪽에 가서 우유통을 꺼내려고 킁킁거렸다. 그러자 아저씨께서 오셔서 도와 주셨다.

“너 우유받아먹니?”

아저씨께서 물으셨다.

“아니요. 우유를 먹으면 속이 이상해요.”

“하하하 그건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거야. 그리고 앞으로 우유를 받아먹도록 해.”

“왜 받아먹어야 해요?”

“음 그건 우유는 건강에 매우 좋기 때문이지.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말야. 그리고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뼈도 튼튼히 해준다. 너도 우유를 먹으면 이까짓 우유통쯤은 거뜰히 들수 있을 걸?”

“우유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 많이 먹어야겠네.”

“그럼, 시험삼아 하나 먹어봐. 우유가 몇개 남았으니.”

아저씨께서 우유를 하나 주셨다. 머뭇거리면서 나는 우유를 받아 마셨다.

“음. 맛이 좋네요. 속이 미숙거리지도 않아요.”

“것봐 이젠 괜찮지? 앞으로 우유 많이 먹어라. 늦겠다 어서가라.”

“네 아저씨. 고마워요.”

나는 교실로 향했다. 우유통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내가 우유를 마셨어. 국민학교 와서 처음이야. 정말 맛있어.’

우유를 내가 마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 나 우유한잔만 줘.”

나는 들어오자마자 소릴질렀다.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내가 웬일이니? 우유를 달라고 하고 별일이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당당하게

“엄마. 우유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뼈도 튼튼히 해주고 건강에도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도 매일 우유한잔씩은 먹어야 돼요.”



하고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했다.

엄마는 눈이 동그래져 나를 뵈히쳐다 보셨다. 나는 생긋 웃으며 맛있는 우유를 단숨에 마셨다.

.....
동상

우리집 냉장고엔 물이 없다.

김정화

서울 삼전국교 2년

“엄마, 우유 가져 왔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아침마다 자랑스럽게 외치는 소리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대문에서 우유를 꺼내온다.

나는 우유를 무척 좋아한다. 아니 씹는 것보다는 쭈욱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게 나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집 냉장고에는 물이 없다. 내가

“엄마, 물주세요.”하면 어머니께서는 “물은 없지만 시원한 우유는 많이 있는데…….”하셔서 나는 아주 시원하다는 말씀에 우유를 아주 많이 마시게 된다. 집에서는 식사 때마다 학교에서는 둘째시간과 네째시간이 끝난 후에 마시고 또 요구르팅을 만들어 먹고 음료수는 절대로 안되는 어머니덕에 동생과 나는 우유를 마실 수 밖에 없다.

나는 우유가 정말 좋다. 아마 우유 잘 마시는 우유 대장을 뽑는다면 당연히 1등 할수 있을텐데.

밥을 잘 안먹는 나는 우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밥을 먹을 때도 물대신 우유가 한잔씩 식탁에 오르는데 나와 반대로 동생은 늘 투정을 한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느날 교육방송에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튼튼하고 키가 커진다고 하자 나의 귀여운 동생은 냉장고에서 큰 우유를 꺼내

“엄마, 나 이 우유 다 먹을꺼야. 그래서 아빠보다 더 커질거야.”어머니께서는 너무 좋아서

“그래, 그래. 우리 태화 우유 많이 먹고 튼튼하고 씩씩해야지.” 하시는 거였다. 그런데 나의 동생이 하는 말은 어머니와 내게 배꼽을 빠질뻔 하게 만들었다. 동생의 말은

“근데, 엄마. 내일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나를 몰라보면 어떻게 해. 우유 너무 많이 먹어서 키가 아빠처럼 커져서.” 그 후 내동생은 우유를 좋아하게 되었다.

“
나는 우유를 무척 좋아한다. 나는 우유가 정말 좋다. 그래서 우리집 냉장고엔 물이 없다. 아마 우유 잘마시는 우유 대장을 뽑는다면 당연히 1등을 할 수 있을텐데……”

”

우유는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지혜, 자연보호를 가르쳐 주었다. 왜냐하면 나는 만능 텔런트라는 별명이 붙었고 또한 어머니께서 깨끗이 씻어 말린 우유곽은 재활용이 되어 화장지로 변해서 우리 집으로 다시오니 이것으로 1석2조가 아니라 1석3조가 아닌가. 더구나 자연보호도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건강을 지켜주는 우유!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마셔서 건강을 지키고 나라도 아주 많이 살이 쪼으면 좋겠다.

.....
등상

우유 당면

장대진

경남김해시 활천국교 1년

1교시가 끝나는 음악 소리가 울렸다.

“기철아! 우유 가지러 가자.”

나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하고 신발도 신지 않고 우유 상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사실은 오늘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반 친구 우유를 나 혼자 가져오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철이가 올까봐 우유 상자를 들고 달렸더니 너무 무거워서 킁킁 소리가 났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으하하하’ 아주아주 신이 났다.

선생님과 우리반 친구 40명에게 우유를 갖다 주고 나눠 준다는게 참 기분이 좋았다.

내가 갖다 준 우유를 맛있게 먹는다는걸 생각하니...

“대진아! 같이 가자.”

기철이가 저만큼에서 달려오는게 아닌가.

나는 우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재빨리 교실로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우유를 나누어 주었다.

우유 상자를 보니 내 우유 하나가 남아 있었다.

‘짜악 짜악’ 사방으로 크게 벌려서 우유를 입에 대니 고소한 냄새가 났다.

“우유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된다.”라는 선생님 말씀이 생각났지만 너무 시원해서 ‘벌컥 벌컥’ 다 마셔버렸다.

잠시후, 기철이 얼굴을 살며시 보니 우유를 맛있게 마시고 있었다.

‘기철이는 화가 났을까...’

하지만 나는 기분이 참 좋았다.

“

선생님과 우리반 친구 40명이 내가 갖다준 우유를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면 우유당면하는게 참 기분좋다.

”